

# 민주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 필승 결의 “민생 회생·민주 회복·전북 승리”

“무도한尹 정권에 맞서  
전북의 새도약 견인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분들 찾아낼 것”

22대 총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10명의 지역구 후보자들이 필승 결의대회를 가지고 원팀을 통한 전선 사수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익산을)을 비롯해 김운덕(전주갑)·이성운(전주을)·정동영(전주병)·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이춘석(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고창)·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후보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22대 총선 필승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병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 10명의 후보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다”며 “내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민주당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과 한단 가격이 875원이라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재민금 예산 삭감 등 전북을 흉내내고 도민 여러분의 자긍심을 짓밟았다. 4월10일은 윤석열 정부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22대 총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지역구 후보자들이 27일 전북도의회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호영 후보, 윤준병 후보, 이원택 후보, 김운덕 후보, 한병도 전북자치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춘석 후보, 이성운 후보, 정동영 후보, 박희승 후보)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후보는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주가지조 등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면서 “김건희 종합 특검과 함께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폭주의 제동을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선에 나서는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 10명의 면면은 도민께서 간절히 바랐던 드림팀”이라며 “전북의 자존감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 평화 파괴정권과 맞서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원택 후보는 “경제, 외교, 국방, 외교, 민생이 어렵다”며 “민주당의는 후

퇴하고 검찰특재가 심화하고 있다. 전북 곳곳에서 전북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의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후보는 “22대 전북 후보군은 초·재선과 3선, 5선의 진용이 구성된 것으로 이는 제대로 싸워보라는 도민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과 싸워 전북 뒤통을 반드시 찌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후보는 “도민뿐 아니라 출향인까지 포함해 전북 목소리가 실리도록 하겠다”며 “선거기간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현 못하고 끄고 앉았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표출해 외부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선에 도전하는 박희승 후보는 “전북, 남원의 아들인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이 영천해 호주 대사로 가며 상상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소외된 지리산 덕유산 전북 동부에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 균형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안호영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짊어낸 책임을 전가하고 새민금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북도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국 총선 승리의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 고창군의회,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7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조규철 의원(대표위원)과 이선덕 의원, 그리고 김영춘, 이선구, 성종익, 서현광, 김용운, 김동성, 박귀기 등 재무·회계 분야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 7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도민이 행복한 어촌... 수산업 활성화 지원

### 전북자치도, 어촌 활력 등 5개 테마로 총 838억원 집중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업 활성화 지원에 집중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어장환경 변화,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산분야에 5개 테마로 838억원을 집중 투입해 수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개 테마는 △활력 넘치는 어촌민들 기,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수산자원 회복, △친환경 스마트기반 양식업 육성,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향상이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민들 기를 위해 308억원을 투입해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증진, 지방어항 건설,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어스테이 조성, 계절근로자 운영사업 등을 추진해 어촌·어항의 생활공간 혁신 및 창업 활성화로 살고

싶은 어촌마을을 구현한다.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사업비 59억원을 투입, 인공어초 설치, 해중립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어도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해 어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수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친환경 스마트기반 양식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품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107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에너지 보급, 내수면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138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가공설비 확충, 위관장 현대화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수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 및 전북 수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

진해 수산식품 안전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149억원을 투입해 어업인 수산정책보험,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생분해 어구 보급 및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며 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을 기울인다. 이 밖에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어업인 단체 지원, 해양 방생용 감시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 등에도 57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민금담당 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어촌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어촌이 활력을 되찾아 살고 싶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3~5월 자살예방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치료 지원·생명지킴이 확대·자살위험수단 차단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살 고위험 시기인 3~5월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로 나타났다. 이는 일조량 증가,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새학기, 졸업, 구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 등이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의 대상 직종을 학교 내 상담·보건교사 등 교육자원으로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대응방법 등을 주기적으

로 교육해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 이력이 있거나 우울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자살 고위험군 도민들에게 난치성 우울 및 자살충동 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비강스프레이(스프라바도 나잘스프레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4월부터는 자살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생명사랑 실천가게 및 숙박업소를 지정해 번개탄 판매 보관함과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보급·관리한다. 지정된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살위험 발견 시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해 자살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도움받는 방법을 몰라서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 각종 도움기관 정보가 담긴 포스터, 리플릿 등을 온라인(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SNS), 오프라인(현수막 게시대, 임대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 건강증진과장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선제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며,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자살사망자 통계는 2022년 462명으로 2021년 대비 47명이 감소했다. /김재훈 기자

## 총선 출마 전북 후보자 14명 총 31개 전과 보유

### 국힘 양정무 9개로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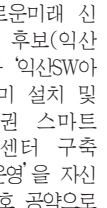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총 14명의 후보가 총 31개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은 전주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자다. 양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8건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지난 2014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등 총 9건의 전과가 있다. 양 후보자의 뒤를 이어 전과가 많은 이는 전주을에 출마하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 3건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며 입부방해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하는 새로운미래의 한기대 후보자가 4개의 전과를 기록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증거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02년 증거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2006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국민의힘 최용운(정읍·고창)·진보당 전권희(익산갑)·자유민주당 전기업·무소속 방수형(전주갑) 후보자가 각각 2건이, 더불어민주당 김운덕(전주갑)·한병도(익산을)·국민의힘 최홍우(군산·김제·부안을)·김민서(익산갑)·강병무(남원·장수·임실·순창)·한국농어민주당 황의남(남원·장수·임실·순창) 후보자가 각각 1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뉴스

## “SW아카데미 설치·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 새미래 신재용 후보, 익산서 1호 공약 발표

### “지방소멸 위기에 전방위 대응 필요” 강조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익산갑)가 ‘익산SW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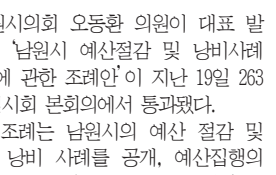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삼성의 SW아카데미 사제처럼 청년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조려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토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러면서 “익산SW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역에서의 일할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익산 청년들에게 IT 코딩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해 직접 웹이나

신 후보는 27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발표에 앞서 “과거 부유했던 영골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SW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역에서의 일할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익산 청년들에게 IT 코딩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해 직접 웹이나

##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 오동환 남원시의회 대표발의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급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접해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급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고, 시민의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오동환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중 소송비 지원... “공무수행 안정성 확보”

앞으로 의정활동 중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전주시의원들에게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송 비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의 의결이나 전주시의회 의장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는 7명으로 구성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단 의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선고유예도 포함)가 확정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뉴스